

#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의식과 행동

- 메도루마 슌 『무지개 새』 를 읽고 -

일본 문학과 동아시아사\_손지연 교수님

2020년1학기

2016 102612 이 다 인

오키나와의 미군 성폭행을 소재로 한 소설 『무지개 새』 는 소설의 초반 부터 마지막 까지 읽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매우 구체적인 폭력이 묘사되어 있다. 성폭력 부터 학교 폭력, 전쟁의 폭력까지 수많은 폭력의 지옥도를 보여주는 이 소설은 오키나와의 현실을 아주 잔인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미군들에 의한 성폭행이 거의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키나와인들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폭력에 길어져 또다른 폭력을 낳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총 3가지 폭력의 양상을 발견하였다. 첫번째는 오키나와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두번째는 오키나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성매매 산업에 유착된 폭력, 마지막은 오키나와 전쟁을 거차면서 겪은 전쟁폭력 속에서 특히 미일 안보체제 아래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략한 오키나와의 일상을 파괴하는 미국의 폭력. 이말고도 너무나 다양한 폭력의 양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시작과 끝을 파악하기 힘들게 연속되고 있다.

수많은 폭력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동시에, 의문이 하나 생겼다. 바로 폭력의 피해자들의 의식과 그로 인한 행동 양상이다. 지속적인 폭력이 가해졌을때, 피해자들은 점점 커지는 폭력의 무게에 허우적거리거나 고통스러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히 고통 혹은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가해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심리부터, 역으로 그들에게 은혜받고 버림받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가해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결국 『무지개 새』 속 인물들은 전부 피해자임에 동시에 누군가에겐 가해자였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긴시간동안 지속적 폭력에 노출이 되면, 그 분노가 더욱더 커지거나 혹은 그 반대로 완전히 철저히 무력해 지는 것이라 예상했었다. 어째서 동경/고마움/버림받고 싶지않은 마음/이해 등의 결과가 나오는지 소설을 읽는 내내 인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책 하나가 떠올랐다. 바로 [ 3096일 \_ 나타샤 캠푸쉬] 였다. 영화로도 개봉된 이 작품은 독일에서 10살 소녀가 납치되어 8년간 감금 당했다가 탈출하는 작가 본인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묘사가 있다. “소녀는 몇 년 동안 강금을 당하며 너무나 많은 폭력을 당해 왔으나, 어느날 스스로가 그 가해자에게 연민과,공감 심지어 감사와 위로의 감정을 느꼈다. ... 또한 점차 과거의 폭력의 기억이 흐릿해져 갔다”는 부분이였다. 그래서 작가는 당시, 더이상 이 폭력들을 본인이 잊기 전에 매일매일 폭력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8년간의 폭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몇월 몇일에는 어디를 어떤 강도로 몇대를 맞았고, 어떤 성적 착취를 약 몇분동안 받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 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신기하게 그 가해자와 함께한 8년이 모든 시간이 최악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나를 무섭게 하였다” 고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그 가해자에 대해 분노 /미움/공포 만의 감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 8년간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사소한 호의를 받으면 그에게 고마움과 충성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는 가해자에게 완전하게 길들여진 상태 라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는 이런 혼

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그래도 탈출을 하려는 갈망이 남아있어 몇몇번의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지개 새』 속 인물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리 같다. 지속적인 폭력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식 변화와 행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본다. 소설 속 인물들은 ‘폭력에 길들어졌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소설속에서, 남성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여성들은 너무 쉽게 짓밟혔다. 오키나와인은 미군들의 성폭행 사건이 비밀비재 해도 어린 여자들을 밤에 내보낸 부모들 탓이라며 먹고 살게 해주는 미군들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미군들을 옹호하기도 하는 가쓰야의 엄마. 코자 폭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미군이 문제를 일으켜줘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기뻐하는 가쓰야의 아빠의 모순적인 태도. 가쓰야 또한 군용지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부모의 밑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들에게 저항해도 되는가 하는 혼란. 가라데 유단자이면서도 ‘히가’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약 10년간 하수인으로써 일하며 비굴할 정도로 복종하며 살기도 한다. 저항하기는 커녕 버림 받아 혼자 남겨지게 될까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히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히가에게는 어떤 끌리는 감정과 동경을 느끼며 스스로를 합리화 하기도 한다. 소설속 히가의 아래에 성적 유린을 당하는 매춘여성 17살 소녀 마유는 평소 무기력한 모습과는 다르게 매춘 남성들을 역으로 잔인한 성적 유린을 하거나, 아무 관련 없는 어느 미군의 딸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인물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자신을 폭행하는 사람에게 감정이 동화되어 폭력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폭력속에 노출된 인물들의 행동 양상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러하다. 먼저 폭력에 대해 트라우마와 일상을 해치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다 점차 무력화되며 정체성, 주체성을 잃고 현실에 순응하기 시작한다. 또한 본인과 관련 없는 누군가에 비슷한 폭력을 행하고, 그대로 모방하여 돌려주기까지 한다. 그런 폭력적인 상황속에 길들어지면 점점 가해자에게 고통과 분노 보다는, 현실 순응과 공감과 이해 그로 인한 또 다른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이상적인 태도가 보여진다.

인간은 수많은 고통을 동시에 겪으면서 살고 있다. 중요한것은 그 고통이 인간관계를 토대로 발생한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인데, 특히 전쟁이나 국가 폭력 등을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형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 고통도 가져올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고통이 단순히 가해자-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여 개인의 트라우마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폭력의 양상으로 변형되고 반복된다는 것이다.

오킨이 광형덕씨는 "'무지개 새'는 누가 오키나와에 폭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궁구한 내용이라기보다 견고한 폭력의 구조를 제의적으로 파괴하는 의식의 한 형태로 보여준 수작"이라고 했다. 오키나와에서의 폭력 근절과 평화를 향한 의지가 담긴 작품이나 폭력의 트라우마는 현재까지 깊숙하게 일상을 천천히 치밀하게 파괴시키는 것 같다. 이런 결과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역사의 무게인 것일까. 씩씩했다.